

## 豐壤趙氏漢山君派世譜序文

우리 豐壤趙門은 高麗朝에서 朝鮮王朝를 거쳐 오늘의 이르기까지 始祖로부터 綿綿히 三十餘代를 이어오면서 子孫 總數가 十四萬人에 이르고 우리 漢山君派의 子孫數도 二萬五千人을 헤아리게 되었다.

우리 漢山君派 宗中은 代代로 名臣碩學으로 名聲을 얻은 어른이 헤아릴 수 없이 多數이며 忠節과 孝悌의 龜鑑이 되어온다. 우리 漢山君先祖님의 後孫들은 仁義禮智의 德業을 쌓아 修身함으로써 父母님에 孝行으로 報恩하며 또한 先祖님이 遺業을 追慕하고 繼承하여 家門의 榮譽을 위하여 勤勉誠實하게 努力하는 한편 一家間의 敦睦을 實行하여 和合을 期하고 자라는 子女들의 訓育을 至誠으로 거두어 우리 家門에 發展과 人口의 增加 등으로 激變하는 時代임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世譜는 代世와 次序를 分明하게 함으로 昭穆을 明確하게 하는데에 있음으로 우리의 始祖로부터 父系를 中心으로한 同族의 世系와 代世間의 行死序次를 表現하는 譜牒으로서 發行當時의 子孫에 이르기까지를 收錄 編纂한 冊本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漢山君派는 예로부터 數百年間에 걸쳐 有司體制로 傳하여 오다가 一九六一년부터 現代體制인 宗會로 改編하여 傳해온다. 宗中 定款에서는 宗中事業으로 派譜刊行을 施行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對內外的인 與件變動으로 인하여 派譜刊行

이 遲延되어 왔다。그러다가 二〇〇六年에 丙戌譜가 刊行된 바 九冊內容中 編纂上의 誤謬 등으로 많은 수에 달하는 不當事例가 發見되었다。刊行部署에 누차 是正을 그 文書로 要請하였음에도 그의 實現이 拒否當한 것은 宗中史에 큰 汚點을 남기게 되었음을 甚히 遺憾으로 여긴다。

우리 宗中에서 刊行하는 世譜(創刊派譜)는 우리 宗族의 貴重한 文獻으로서 現代的인 族譜이고 永遠한 金石之文이며 萬古不變의 大宗典이 되어 宗事運營의 指針書가 될 것이 確實하므로 앞으로 宗中 運營의 跳躍과 發展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以上을 序文으로 삼는다。

西紀二〇一〇年 庚寅 正月 日

後孫 豐壤趙氏漢山君派宗中 會長 南仁 謹書